

전문직업과 간호연구

학회 발기 증회에서

연세대학교 간호대학 부교수 전 산 훈

인 사

오늘 우리나라의 간호업무, 보건업무, 행정, 교육 등 여러 분야에서 간호사업의 발전을 위해 또 조국의 근대화를 위해 주도적 역할을 하고 계시는 여러분을 도시고 오랫동안 열원하던 학회가 창설된 이 마당에서 “전문직업과 간호연구”라는 주제 밑에 소견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하는 한편 감개무량함을 금할 길 없습니다.

서 론

70년대를 향하여 국가, 사회, 문화, 학문 모든 영역에서, 특은 것으로부터 새로운 방향으로 정진하고 있습니다.

간호직에 있는 사람도 개인으로나 집단으로나 모든 방법을 사용하여 자기의 직업과 기능의 중요성에 대하여 전진하는 자세를 취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의사나 법률가 또는 다른 전문직에 있는 사람들은 차차 고도의 자격을 요하게 되었고 그 존재도 역시 사회에서 필요하게 되었으며 따라서 그 행위도 불가결한 것으로 자인하게 되었습니다.

간호직도 이러한 점에서는 그들과 같은 태도를 취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동시에 만일 사회가 복지향상을 그의 목적으로 한다면 이도 또한 간호직의 중요성에 대하여 인식을 달리해야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간호직 자체로서는 자신상실, 부정주의, 열등의식이 없애지고 자신의 사회가치에 대하여 확고한 확신이 생길때 간호직은 비로소 사회발전의 요원에 대한 보다 큰, 선택성을 갖는 방향으로 진보하게 되며 간호직 자신의 성장과

발달, 사회공헌의 확대와 개량이 약속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사조와 경향을 양성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와같은 시점에서 간호직 활동의 각분야에 있어서도 다른 전문직과 마찬가지로 여기서 파생되는 문제가 많아지게 되었으며 그 문제 해결도 어려워 지며 그 문제해결 방법도 또한 여러가지로 강구되고 있는 현황입니다.

이에 우리가 당면한 현실과 이에 미치지 못하는 요구와 필요의 gap을 어떻게 메꾸어 나갈 것인가 간호직의 당면한 과제이며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I. 전문직업과 간호직의 개념

R. Louise Mcmanus(1954)는 “전문직이란 전문화한 이지적인 연구와 훈련을 기초로 하는 직업이다. 이 목적은 윤리적 요소와 능숙한 기술로 사회에 봉사하며 응분의 보수를 받는 직업이다.”라고 규정지어 그는 전문직을 학문연구증실으로 관련시켰습니다. 또한 Dr. Abraham Flexner는 어떤일이 전문직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조건을 내세웠습니다.

전문직은

1. 개인의 큰 책임이 수반되는 知的 조직이 본질적으로 포함되어 있다.
2. 성격에 있어 학구적이어서 그 전문직에 종사하는 사람은 항상 실험장이나 Seminar에 출석하고 새로운 지식의 흡수가 요구되어야 할 것이며
3. 그러면서도 단지 학문적, 이론적만이 아니고 목적에 따라서는 확실하게 실제적이어야 한다.
4. 고도의 전문적 교육훈련을 통한 Communication이 가능하다는 것.
5. 자기들의 조직을 가지며, 그 조직의 활동의무, 책임을 보증하며 단체의식을 조장하는 것이어야 한다.
6. 끝으로 "개인보다도 공공의 이익에 대하여 민감하며 개인의 목적보다 사회목적에 도달하는 것에 큰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다"라고 하여 이도 또한 학문과 연구 위에, 전문직의 존재를 인정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전문직을 知的 직업, 또는 학자 직업이라고 함도 여기에 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간호직도 전문직의 대열에 같이 발맞추려면 이 여러가지 특성과 책임을 수행하여야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전문직 간호원은 질병충심인 진단, 치료, 처방, 예후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습니다, 즉 이는 의사의 업무이기 때문입니다. 간호는 독립한 전문직으로서 독자적 판단을 내릴 수 있으며 법적으로도 그럴 수 있는 것입니다. 즉 환자 아닌 인간의 문제를 발견하고 분석, 규정하며 간호계획을 세워 이를 시행하고 평가함에 있어 과학적 제반원칙을 적용하는 이해력과 능력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전문직 간호원의 넓고 깊은 시야는 고도의 학문과 연구에 의해서 온다고 봅니다

문제분석의 능력

필요 자료 수집의 능력, 논리적 결론을 결정하는 능력, 원리나 이론을 이해하는 능력등의 여러가지 능력을 지니는 것이며 전문직 생활에 필요한 전문적 기술을 지니는 것들입니다. 그리하여 인간의 육체적, 심리정신적, 사회경제적 간호와 더 나아가서는 교육적, 전인격적 간호

를 하기 위하여 차차 고도로 개선되어 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인간호(Comprehensive Nursing Care)입니다. 전인간호는 개별적 간호에 중점을 두는 것으로 출발하게 되는 것이며 궁극의 목적은 인간의 위치를 보다 더 나은 자리에 완전한 사회인으로 돌려보낼 수 있기까지 간호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같은 진단을 받은 환자일지라도 그가 지닌 사회적 배경이 각각 다르며 또 그들의 문제 또는 그 문제 해결 방안으로서 환자의 요구의 충족등은 개별적으로 간호계획이 세워져야 하고 관리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간호의 최고의 목적을 과연 어떻게 구체화하여 실현할가는 우리들의 과제인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중요시하는 간호문제는 즉 환자의 요구이며 이 요구를 충족시켜 주는 것은 전인간호인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 우리의 지식이나 연구하는 것은 모두 다 환자를 위해 아닌 인간을 위해 사회집단을 위해 존재하며 연구의 결과가 직접 행동으로 그들을 위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II. 연 구

전문직을 위하여 우리는 학문을 배워야 하며, 배운 것을 실제로 옮겨 써야 하며 또 새로운 것을 만들어야 합니다. 많이 아는 것만이 수가 아니라 그것을 사용할 줄 알아야 하며 더 나아가서는 그것의 새로운 사실, 원리, 개념, 방법, 체계를 발견, 발명하여 보태주는데 학문의 발전이 있는 것입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연구란 학문을 사용하고 만드는데 관계되는 활동이라고 하겠습니다.

간호는 그 영역에서는 이것을 학문적으로 혹은 연구적으로 다루어 보려고 할 때 언제나 막연하리만큼 넓은 접근의 가능성(Area)에 부닥치게 됩니다.

그리하여 너무 벅찬 것을 느끼게 됩니다. 즉 인간을 간호하는 간호학과 관계되는 학문만 하더라도 의학, 일반과학, 심리학, 사회학, 교육학, 철학, 신학, 문화 인류학, 행정학, 정치학 등등 모두 관여됩니다.

간호연구에 뜻을 두는 사람은 우선 이런 접근의 광범위함에 말하지 말고 그 모든 분야 또는 일부에 전문적 체득을 목적으로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간호학이란 흔히 회행하는 것과 같은 쓸모 없고 씨 없는 관념에 빠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대에 있어 연구라는 것은 가장 신뢰할 수 있는 type의 분석에 부수되는 명칭이라고 하겠으며 이것은 과학상의 여타가지 발견을 모두 활용하는 것을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자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생각해야 할 가장 순서적인 접근법이 연구는 우리들이 진실을 탐구함에 있어 선택하는 여타가지 수단 층에 단지 하나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우리들이 취해야 할 가장 올바른 방법이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연구의 필요성이 오늘날 절박하게 요구되는 몇가지 절을 들어 보겠습니다.

1. 간호연구의 필요성

1) 간호학은 전환기에 놓여 있기에 필요하다.

과거에 간호는 단순히 간호직에 지나지 않았으나 오늘날 간호는 전문직으로서의 간호학으로 전환하는 시기이며 이것이 무르익어 제자리를 잡으려는 시기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기에는 교육, 행정, 업무에 따르는 여타가지 문제가 대두됩니다. 이와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우리는 연구의 뒷받침이 필요하며 그 연구를 통하여 발전에의 접근을 해 나아가야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전문적의 규정상 필요함은 말할 나위도 없거니와 그 중 가장 중요한 핵심은 창의적인 활동입니다.

만일 우리에게 창의적인 연구활동이 없다면 전문적인 직업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모든 간호활동과 간호교육상의 문제를 상식적으로 해결하는 태도로 임한다면 모든 전문성은 상실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너무나 타당한 필요성입니다.

2) 간호는 변천하는 사회속에서 이루어 지고

있다.

현대 사회의 특징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말이 있다면 “급격하게 변천하는 사회”라고 하는 말이겠지요.

오늘날 우리가 경험하는 변화의 속도와 다양성은 과거의 어느 시대에도 찾아볼 수 없었던 것이며 이와 같은 변화는 이 사회에서 성장하고 교육받고 일하는 모든 개인에게 적지 않은 문제를 제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교육학자 Ole Sand는 지식과 기술의 발달과 변천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主後 약 2000년간의 축적은 처음에는 대단히 완만하였지만 얼마 안가서 급격한 가속도적인 증대를 보였다. 그 축적과정을 시간적으로 표시하여 보면 예수의 탄생에서 1750년대에 처음으로 2배가 증가하였다고 볼 수 있으며 1900년에는 제2의 배증(倍增), 1950년에는 제3의 배증이었고 제4의 배증은 불과 10년 후인 1960년에 일어난 것이다.”

이 서술을 보더라도 지식이 얼마나 놀라운 속도로 축적되며 변천되어가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과연 70년대를 내다 볼 때 제5의 배증이 아니라 제10 또는 제100의 배증이 있게 될 것을 누가 부인하겠습니까?

과연 우리가 이와 같이 많은 지식과 여기에 발생되는 문제들을 어떻게 정리하며 다음 세대에 전달할 수 있는지가 우리들이 당면한 큰 과제라고 하겠습니다. 제가 과거에 간호학교에서 배운 것을 오늘도 같은 내용 같은 방법으로 가르친다면 오늘날 새 시대에 대처하여 살아갈 수 있는 바랄직한 인간형성이나 새로운 개념에 입각한 간호는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10년전의 의학과 오늘의 의학은 그 학문적 이론이나 실제에 있어서도 격세의 차가 있으며 공업에 있어서도 공업기술은 물론 그 운영이나 경영면에 있어서도 놀라운 발전을 하였습니다.

영국의 의사 Margaret Jackson은 간호활동의 실제적 실천에 관한 연구의 필요성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간호의 방법과 그 기구들의 연구는 Eve의 시대부터 시작하였다.

Nightingale 또는 그 시대에 교육을 받은 간호원들은 그 연구들 예측할 수 없으리만치 전진시켜 놓았다. 그러나 그 시대로부터 현대에 이르기 까지 간호연구는 마치 그 발전을 막다른 골목에 갖다 놓은 것 같이 되어 있어 아무 진전이 없이 정체되어 있다.

의학이나 다른 Science의 교육은 연구적 분위기 속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간호원도 역시 연구적 분위기 속에서 일을 하게되면 자극이 될 것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단, 의학연구의 분위기가 아니라 간호원 독자 분야의 연구적 분위기에 싸여 있어야 한다. 나는 저급이야 말로 간호연구의 재출발 할 시기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이 발전의 원동력은 자 분야의 취지 않는 학문의 연구에 있다고 보겠습니다. 이와 같은 연구는 모든 전문직에 있어 그 뿐이나 질적으로 놀라운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 간호연구는 다른 분야에 비교할 수 없으리만치 뒤떨어져 있을 뿐 아니라 그 중에도 한국의 간호학 분야에 있어서의 연구란 거의 신천지라해도 과언이 아니라 생각됩니다.

간호연구가 다른 분야에 비하여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는지 조사해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도 현황이야 어떻든 현재 당면한 문제가 신적한 것만은 사실이고 연구에 박차를 가해 부지런히 당면 문제 및 발전도색, 학문적 연구 특히 임상적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절박한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간호학이 science의 한 분야로 독립된 역사가 몹시 짧은데도 그 이유야 있겠지만 간호원에 대한 사회 경제적 지위의 상대적 저하는 간호연구의 기쁨을 떨어뜨리는 큰 요인이 된다고도 하겠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간호연구에 대한 필요성이 어느 때보다 더욱 절실하다는 것은 자타가 공인하는 사실입니다.

사회의 변천이 별로 없던 과거에는 구태여 연구적 입장에서 간호문제, 간호교육문제를 생각하지 않아도 증았을 것이며 또 기왕에 하던 일 또는 가르치던 것을 되풀이 해도 문제가 되지 않

았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사회변천의 속도가 빨라지므로 기왕의 교육이나 지식을 그냥 되풀이 할 수는 없게 되었습니다. 인간의 태도, 가치관 개념, 철학은 20~30년 전과는 판이하게 다르며 이제 앞으로는 그 달라지는 속도가 가속도적인 현상을 나타내겠으니 10년전 5년전 것을 가지고 간호하고 교육할 수는 없는 형편이 될 것입니다. 간호원, 간호행정가, 간호교육자 자신이 달라져야 하겠고 그러기 위하여 계속적인 간호연구가 여기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간호는 새로운 방법과 이념을 모색하게 되는 것이며 그와 같은 방법과 이념은 집중적이고 잘 계획된 또한 연속적인 연구에 의해서만 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3) 과학적 연구가 필요하다.

앞에서 이미 지적한 바와같이 간호의 문제들 한 개인의 경험이나 추리, 짐작, 일반적인 인상 등에 의하여 해결하려고 하는 시대는 이미 지났습니다.

간호문제의 해결은 과학적인 사실에 기초를 두고 그 사실을 분석하는 과정을 통합함으로써 보다 건전한 해결책을 강구해 낼 수 있는 것입니다. 더우기 우리의 현실을 볼 때 과학적인 연구방법에 의한 문제해결이 절실히 요구되는 것은 다 아는 사실입니다.

간호적 주변에는 너무나도 많은 문제가 과학적인 연구에 의하여 해결되어 지기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직 과학적 연구의 올바른 개념이 널리 알려지지 않은 것이 또 하나의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2. 전문직업과 과학적 연구

하나의 간호가 그 종류나 정도 어하를 막론하고 과학이라고 한다면 간호의 특성을 명백히 하는 탐구방법을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연구는 一致性, 질서, 관련을 발견하기 위하여 고안된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그것에 의하여 행동할 때 충족한 신뢰를 받을 것이며 또 확고한 자신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것들이 모두 결정적인 것이 아니라고 할지

는 모르나 그중에 간혹 그 이상의 해명을 할 수 있는 한 단계 더 진보된 연구를 하든가 창의력 있는 사고력이 나타나서 새로운 관련성을 발견할 때는 수정하게 되는 수도 때때로 있습니다. 현대에 있어 어떠한 전문직업, 직업, 혹은 大産業도 자기 그들이 지니고 있는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 그 program의 하나로서 과학적 탐구법을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이 과학적인 연구방법은

1. 처음에는

작은 기초를 두고 그 연구의 결과로 나타난 증거의 지원을 받음으로써 일반화된 사실로 인정 받게 되는 것입니다. 즉 사실은 과학적인 연구에 있어서 시발점이 되는 것이며 사실에 전하지 않은 연구는 하나의 희망의 결과나 우리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2. 또한 간혹는

인간과 그 문제 해결에 작용하는 복잡한 현상에 놓여 있기 때문에 이와같은 복잡한 현상을 파악하고 이해하는 방법을 사용해야 하는데 이것은 즉 전체적 방법과 부분적인 방법입니다. 과학적 연구방법에서는 이 두가지를 병용합니다. 즉 먼저 전체를 보고 다음 부분적 분석에 들어가며 마지막에 이것을 종합하는 것입니다.

물론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부분적인 분석보다 전체적인 인상이 더욱 중요할 때도 있으나 지금까지의 우리의 간호연구는 거의 전체적인 방법에 치중되어 왔다는 사실에 비추어 특히 분석적인 방법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3. 과학적 연구는

어떤 현상 다음에 반드시 다른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경험할 때 우리는 두가지 현상 사이에 어떤 관련이 있는 것으로 결론 지으며 이 관계에 대한 가설을 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연구과정이나 사고과정에 있어서 가설이 없는 것을 많이 보아 왔습니다. 가설은 진리탐구의 지침이요 지표가 되기 때문입니다. (어두운 밤중에 등불이 된다.) 가설은 연구과정의 목적을 제시해 주며 이것이 있을 때 좀더 많은 것을 찾게 되고 성취하게 됩니다. 끝으로 과학적 연구는

4. 감정적인 편견에 사로 잡히지 않고 어디까지나 객관적인 척도를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Ⅲ. 간호연구

I. 현 황

1) 간호연구의 역사

간호연구의 역사로 보나 그 성과로 보아 미국을 능가하는 나라가 없다고 필자는 생각되어 미국의 간호연구를 알아 봄으로써 우리나라의 것과 비교하고자 합니다. 필자가 N.R.을 공부하는 동안 미국의 N.R.의 역사는 나에게 많은 교훈과 지식을 주었습니다. 여기 간략히 미국의 간호연구의 역사를 4기로 나누어 논해 보고자 합니다.

1920—1930년대 (초창기)

이 시대는 미국의 간호연구의 초창기라고 하겠으며 또한 이 시대에 미국의 처음 대학 과정이 싹트기 시작한 시대이기도 합니다. 이 시대에 연구된 것을 간추려 살펴보면 극히 기본적인, 전체적인 간호교육과 간호업무의 문제였으며 당시 현재 우리나라의 당면문제와 비슷한 문제들을 다루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간호교육 시설 확충문제, time study, 의사의 복잡한 지시에 따르는 간호원 업무의 비례문제로 파생하는 간호원 증원문제, 간호교육의 독립성 (병원으로부터) 문제, 간호업무를 위한 수요공급문제, 직무분석, 간호학교의 학제결정문제 등이 연구의 제목으로 다루어졌습니다.

1930—1940년대 (착상기)

이때는 여러가지 연구 위원회가 조직되기 시작하였으며 연구의 기틀이 잡히기 시작하는 때라고 보겠습니다.

“The committee on the grading of nursing schools”는 3회에 걸친 계속적 연구를 하였으며 이 보고서는 “An Activity Analysis of Nursing”으로 출판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결과가 실제로 인정되기까지는 1950년 “National Nursing Accrediting Service”가 생긴 이후였습니다. 또한 간호원의 보수문제가 연구되고 이에따라 A.N.A에서 간호원의 경제적 보호가 역력히 검토된

때드 이때입니다. 그 혜택은 오늘날 한국 간호사
업에까지 직접 간접 받고 있으며 전세계적인 영
향을 가져다 주는 연구들이라고 보겠습니다.

1940—1950년대 (성숙기)

이 시대의 대표적 연구는 The cost of nursing
service와 Nursing Education에 관한 기본적 조
사가 이루어졌습니다. “The national organiza-
tion of P. H. nursing”에 의하여 home care의
필요와 그 자원에 대하여 16개 지역에서 조사보
고 되었으며 제 유명한 Brown Report가 연구보
고된 것도 이때입니다. 이 보고는 나중에
“nursing for the future”트 발표되었습니다.
이것은 간호학 각 분야에 지대한 도움을 가져왔
습니다.

1950—1960년대 (발전기)

미국 전국적으로 간호연구 기구의 필요성을
주장하게 되었고 이 주장이 성취되어 드디어 19
52년 처음으로 “Nursing Professional Organiza-
tion”의 잡지인 “Nursing Research”가 창간된 때
입니다. 또하나 Dr. Simmon (인류학자)과 간호
교육자 Virginia Henderson은 Yale University
후원아래 National Committee for the Improve-
ment of Nursing Services에서 과거 10년 중
간의 간호연구를 규명 평가하는 조사연구를 시
작하였으며 이 Report는 후에 단행본으로 출판
되었습니다. 이 시대의 특기할 것은 대학내에
간호연구기관이 설치된 것입니다. 그 중의 하나
는 Columbia University Teachers College에서
Dr. Helen Bunge에 의하여 이루어 졌으며 이것
은 간호교육의 새로운 전환점을 이루었습니다.
즉 이와같은 Research Institution들은

1. 간호문제 및 간호교육문제의 연구
2. 연구결과 보고 하도록
3. 연구자 양성 및 원조가 목적이었습니다.

이에 뒤이어 A.N.A.의 원조로 The American
Nurses' Foundation이 설립되고 정부기관에 The
Nursing Reserch grant & Fellowship Program
of the Division of Nursing of the U.S. Public
Health Service가 설립되었습니다.

Walter Reed 육군병원에도 Research grant

가 생기었습니다.

1960—현재 (전성기)

Nursing Studies Index가 완성되어 연구를
위한 문헌 조사상에 지대한 공헌을 하였으며
Nursing Research에 관한 유명한 저서들이 많
이 저술된 때도 이 시기입니다. 1962년에 Mayer
와 Heid gerken의 “Introduction to Research
in Nursing”이 출판되었고 1964년에는 Simmons
& Assesment가 완성되었으며 1965년에는
Abdellah와 Levine의 “Better Pt. care through
Nursing Research” 등의 값진 저서가 모두 간
호학자들에 의하여 저술되었으니 세계의 간호연
구에 미칠 결실이라 하겠습니다.

현재 미국의 간호연구 경향은 Simmons와
Henderson은 그의 저서 가운데 이제 미국의 간
호연구는 간호교육이나 행정적 연구가 임상적 연
구에 비하여 압도적으로 많은 것을 지적하였으며
앞으로 임상적 연구 즉 환자중심의 연구, Care
에 대한 연구를 할 것을 권면했습니다. 또 다른
여러 연구자들은 이것을 주장하고 그러한 방향
으로 연구의 노선 펼침을 옛 볼 수 있습니다.
즉 미국의 보건위생부 의무장관의 간호고문단은
그들의 보고가운데 다음과 같은 Recommenda-
tion을 볼 수 있습니다.

“간호연구를 장려하여야 할 것이다. 간호에 관
한 연구는 이제 Nursing Care의 개선을 위한 기
초가 되는 지식을 산출하기 시작했다……간호
의 형태가 변모하여가는 것에 보조를 맞추어 환
자 중심의 연구를 개발하기 위하여 보다 더 일
층 지원이 되어야겠다”

즉 이것도 임상간호의 실천에 관한 연구의 필
요성을 말하는 것이라고 보겠습니다. 이것이 전
체를 나타내지는 못하지만 간호연구를 위한 경
제적인 국가원조가 얼마나 뒷받침되나 하는 것
을 조사하다가 얻은 것으로 부분적인 Source를
얻었습니다. 즉 미국 공중위생국에서만 1955년
이래 132만건의 기획에 대하여 8,672,700불의 간
호연구비를 지출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것만 보더라도 미국의 간호연구 및 간호교육의
원조가 가히 추정됩니다.

2) 대학내의 연구경향을 보면

① 미국의 몇 간호학교에서는 학생의 초보적 연구경향을 주고 있고 전문직의 연구의 기본이 되는 교육입니다.

② 교수진의 연구능력을 개발하려는 Program 을 가진 학교도 있으며

③ 연구실을 가진 간호학교도 볼 수 있었으며

④ 연구교수제를 두어 연구에만 몰두하게 하여 연구를 장려하는 것도 볼 수 있었습니다.

간호연구 전문 간행물 “Nursing Research”의 1968년도에 기재된 연구의 종류를 조사해 보았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임상간호연구가 32로 수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다음 간호교육연구 25, 간호행정 10, 보건 5건, 기타 11건으로 되어있음을 보더라도 미국의 간호연구는 이제 그들이 기대하는 바 환자중심의 간호연구로 집중됨을 볼 수 있습니다.

3) 우리나라의 간호연구

1955년에 간호대학 과정이 설립되기 시작하였으며 1961년에는 대학원 과정이 시작되었습니다. 비트소 Research의 역사는 이때 시작되었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겠지요. 대학은 학식과 지성에 있어서 한 나라의 최고수준을 이루고 또 꾸준히 학문연구에 몰두하는 학자들의 자주적 공동생활체이므로 문화의 전승에 그치지 않고 그 문화의 제 측면과 내용에 걸쳐서 새로운 경지를 개척 확장하는 창조적인 연구기능을 가지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지식의 확장 세기에 있어서 대학이 맡아야 할 연구책임은 대학원의 발전을 촉진케 했고 그 결과 연구는 활기를 띄우게 되기도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학부보다는 대학원 중심의 대학이 연구의 중심처와 같은 구실을 합니다”라고 하였으며 이것은 그 좋은 예입니다.

시기적으로 보아 우리나라의 것을 미국의 간호연구의 초창기 1920—1930년대에 비교한다면 약 반세기 가량 뒤늦은 감이 있으며 또한 그 내용적으로도 이것을 부인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간호연구 발표는 대개 <대한간호>, 자 대학학보, 논문집을 통하여 발표되고 있으며

간호학술 발표지는 아직 마련되지 않고 있습니다. 어떤 때는 타학문의 지면을 빌어 게재했던 서클픈 경우가 허다합니다. 지금까지 연구는 대개 간호원의 업무분석, 수요공급, 교육과정, 평가, 행정제도 등이었으며 특기할 것은 case study 가 압도적으로 그 수의 대다수를 차지했다는 것입니다.

년도별	건수
61.....	1
62.....	7
63.....	8
64.....	6
65.....	14
66.....	18
67.....	16
68.....	14
69—현재	40 (각 대학원 석사논문 제외)
total	124

년도별 건수를 보면 근 8년간 약 124건으로 매년 미소하기는 했으나 늘어가는 현상을 보여 주어 69년 5월 이후 현재까지는 더 많은 연구를 한 흔적을 보아 앞으로 소망이 보이는 현상입니다.

특기할 것은 또 한가지 간호연구의 문헌연구상 크게 공헌할 자료 즉 「대한간호 목차 색인」이 1969년에 대한간호협회 출판부를 통하여 발간된 것입니다.

1960~1967년의 우리 손으로 못한 것이나 간호교육에 관한 Survey를 한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간호교육 고문단으로는 Indiana 대학교의 교수단에 의하여 2회에 걸쳐 조사연구된 보고서 Adaptation of Advisory Service in Nursing Education in Korea는 간호교육의 발전에 많은 영향을 주었으며 간호교육 연구에 재료를 제공해 주었으며 1969년에 발표된 홍신영, 이영복, 이귀향, 공동연구인 1968년도 문교부 학술연구 조성비에 의한 연구보고서 “한국 간호교육 개선을 위한 일 조사 연구”는 간호교육의 강화와 개선을 위한 조사로서 간호교육 향상을 위한 근거 자료와 방향을 제시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며 간호, 간호교육의 개선방안을 제시해주며 앞으로

더 연구할 문제들을 Recommendation 해주고 있습니다.

문제 많은 한국의 간호사업, 간호교육의 타개해 나갈 길은 오로지 간호연구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발전하게 되리라고 생각하여 간호행정자, 교육자, 임상 간호원의 책임이 이에 부가된 시대라고 보겠습니다.

2. 특 징

우리들의 행동 즉 간호행동의 기본이 되는 것은 항상 학문인 것입니다.

간호행위에 있어서 의문점을 발견하고 학문적으로 의문을 해결해 나가는 것은 간호연구의 특성이며 이러한 습성은 간호원이나 간호교육자에게 항상 필요한 것입니다. 간호는 “인간의 간호”이며 병든 인간 뿐만 아니라 건강한 인간까지도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호학은 육체적, 심리적, 사회적, 경제적, 교육적 문제외에 타분야의 학문과도 깊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 의미에서 간호학은 의학보다도 더 넓게 전개된다고 봅니다. 따라서 연구도 넓게 전개될 가능성을 지닙니다. 간호연구의 제목과 의학연구의 제목을 비교하여 볼 때 이것이 증명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간호연구는 간호원에 의해서만 연구하게 마련되어야 합니다.

간호연구의 중요한 노선은

1. 간호교육의 실천면의 개선을 위한 연구
2. 간호행위, 기구 및 설비에 관한 연구
3. 간호교육이나 간호행위의 평가
4. 간호기술의 가치심사

이상을 위한 통계적인 환용 등 입니다.

3. 문제 점

이제 간호학회가 창설되고 그 기틀을 대 놓았으나 우리나라의 형편을 생각할 때 간호연구의 문제점은 허다하게 남아 있습니다. 연구자 준비, 연구비, 연구시설, 연구제도, 발표기관지 등에 관한 준비가 초 문제점이라는 것은 우리가 다 아는 사실입니다.

물론 이러한 문제들이 앞으로 조속히 해결되

어져야겠고, 또 이루어 지리라고 믿으면서 한가지 더 제언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들 자체에 지닌 문제인 것입니다. 언제나 문제는 밖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자체 내에도 있게 마련이기 때문이지요.

첫째는 우리들이 아직 뚜렷한 문제를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에 연구를 하지 않으면 안되겠다는 절박한 요청을 아직 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것이 아니라면 또 하나의 경우는 연구하게 연구자가 준비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중요한 요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는 일에 왜?, 어떻게?, 라는 그 필요성을 느끼고 간절히 탐구할 때 그다음 조건이 주어지는 것이 아닐까요?

우리는 부족한 것을 보고 좌절되기 보다는 이미 노력하여 이루어 놓은 기반위에 간호연구의 탐을 쌓아 올릴 때가 이때라고 보겠습니다.

거듭 강조하는 것은 전문직 즉 하나의 독립된 실천분야 즉 확실한 정의 밑에 활동하는 간호직은 자체의 제 문제를 밝히고 끊임없이 자기 직무를 확인하고 자기의 하는 여타가지 방법을 개선하며 따라서 자기가 한 일(Nursing care나 Education)의 효과를 측정 평가하는 것들에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4. 이 용

연구를 하는 것이 중요한 것만큼 또한 그 결과를 전문직업을 위해 또는 간호전문직으로 본다면 인간의 간호를 위해 개선발전시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것에 따라 또 갖추어야 할 조건들이 있습니다.

즉 연구결과의 문헌적 처리입니다.

1.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
2. 인쇄물화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간행물로서나 또는 개인의 단행본 문으로서 또는 단체논문집으로서 만들어 집니다.

3. 도서관의 비치입니다.

어느 도서관이나 Research file 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하여 모든 종류의 연구의 보고서나 논문집이 이것을 중심으로 모이게 될

니다.

4. 이렇게 도서관 중심으로 모인 Research file에서 우리는 새로운 지식을 얻을 수 있으며 Recommendation에 의하여 연구의 길을 찾기도 합니다. 연구의 연속성은 좋은 Recommendation에 있으며 이것의 이용에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첨부코저 하는 것은 미국의 간호사업의 발전에 중요한 등기가 될 것은 그들의 문제를 연구하여야 겠다고 생각하여 이 일을 시작할 때 그친 것이 아니라 그 연구로 얻어진 결과에 대하여 깊이 신임하고 이 방향으로 오랜 관습이나 관념을 털어버리고 만났을 무릅쓰고라도 장애의 발전과 목적을 향해 꾸준히 걸어 간 발자취, 그 자체가 오늘날 미국의 간호사업을 가져 왔다고 보아 연구의 이용 가치와 결과를 말씀드립니다.

IV. 끝을 맺는 말

전문직업과 전문직으로서 간호직의 개념을 학문과 연구중심에 두고 있는 것을 논했으며 이와 같은 전문직의 발전과 문제해결을 위하여 연구의 필요성을 세가지로 나누어 논했습니다. 즉

1. 전환기에 처해 있기에, 간호직에서 전문직 간호학으로 전환하는 시기의 구실을 하려던 그의 발생하는 문제의 해결은 연구에 의하여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며

2. 변천하는 사회속에서 간호는 이루어 집니다. 과거의 학문이나 기술로써 현시대에 전문직업으로 처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 발전을 모색하는 연구가 필요합니다.

3. 과학적 연구를 해야 할 때입니다.

즉 우리나라 경험, 인상에 의한 해결책은 현대

는 있을 수 없으며 과학적 기초에 근거를 둔 전전한 해결책이 요구되는 시점이라는 것등을 논했으며, 연구의 현황을 미국과 우리나라의 것을 비교했으며, 간호의 특징은 간호의 본질에 입각한 근본적 작은 사실에 (care에 대한) 간호연구의 특징을 살리는 연구를 강조할 것을 논했으며, 간호연구의 문제로는 연구자의 준비, 연구비, 연구시설, 연구제도, 발표기관이 아직까지 없는 것, 그러나 우리가 절실한 필요성을 주장할 때 해결될 수 있는 문제들입니다.

연구의 이용, 문헌적 보관 비치와 이것의 이용입니다. 또한 결과의 존중과 철저적 이용이 연구의 효과를 가져 온다는 것, 이것으로써 간호학과 간호직이 발전하며 자신을 가지고 사람과 사회를 위하여 공헌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것으로 끝을 맺습니다.

이제 앞으로 있는 박정호선생의 임상적 연구가 어떻게 임상에 이용 공헌되는지, 하영수교수의 연구가 간호교육에 어떻게 이용될 수 있는가 여러분이 들어 보시면 되겠지요.

참 고 서 적

1. Spalding, Eugenia Kenedy, *Professional Nursing Trends Relationships*. Philadelphia J.B Lippincott Comp. 1954, Ed. 5
2. Ole Sand, et al, "Schools for the Sixties" *N.E. A.*, 1963
3. Abdellah Faye G. & Levine Eugene, *Better Patient care through Nursing Reserch*, Macmillan Comp, New York, 1965
4. Henderson, Virginia, *The Nature of Nursing*, Macmillan Comp., New York, 1966
5. 전산호, "대략과정 간호교육의 최근 경향" 대한 간호, Vol. 9, No. 1, 1970, pp. 25~32

